

方藥合編에서 나타난 轉寫過程에 따른 問題點分析(1)

박 선 동*

I. 序 論

方藥合編은 臨床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醫學書로서 普遍性을 가지고 있다. 이 冊은 1869년 惠庵 黃度淵先生이 내용의 완성을 보았고, 실제로 책으로서 알려진 것은 1885년 그의 아들 黃必秀가 編述한 것이 처음이다. 대개의 版本에서는 醫方活套를 全載하고, 그 上段에 損益本草를 合附하고 있으며 補益, 和解, 攻伐의 세가지 系統으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處方の 引用은 약 90%정도가 東醫寶鑑의 內容을 添削하여 이루어진 것들이 위주이지만 다만 加減을 보면 東醫寶鑑을 多角度로 分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景岳의 新方八陣에 나오는 처방이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龔廷賢의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처방이 다수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惠庵은 醫學入門

이후의 國內外書籍을 多樣하게 接하고 이를 臨床的으로 活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著者は 東醫寶鑑에서 轉寫된 處方들에 대한 比較 分析을 통하여 과정중의 誤謬를 是正함으로써 처방의 올바른 歷史的 同時性을 확보하고자 하여 조사한 바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方法 및 內容

上統부분에서 나오는 처방중 내용상 문제점이 판단되는 것만 골라 동의보감원문과 방약합편원문을 제시하고 문제부분에 밑줄을 치고 수정되어야 할 부분과 논자의 해설을 덧붙였다.

東醫寶鑑原文	가미대보탕[加味大補湯] 《風：手足癱瘓》◆治左右癱瘓此氣血太虛也黃芪蜜炒人參白朮白茯苓當歸酒洗川芎白芍藥熟地黃各七分烏藥牛膝酒洗杜冲酒炒木瓜防風羌活獨活薏苡仁各五分附子炮沈香木香肉桂甘草各三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水煎服。(回春)
方藥合編原文	3.加味大補湯:治左癱 右瘓 氣血大虛 [活套]虛甚 倍加重數 * 황기蜜炙 인삼 백출 백복령 당귀酒洗 천궁 백작약 숙지황 各7分 오약 우슬酒洗 두충酒炒 모과 방풍 강활 독활 의이인 各5分 부자炮 침향 목향 육계 감초 各3分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大→太, 炙→炒
解 說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

東醫寶鑑原文	사역탕[四逆湯] 《寒上：少陰形證用藥》◆治傷寒陰證要藥也凡三陰脈遲身痛並用又治四肢逆冷甘草灸六錢乾薑炮五錢附子生一枚右剉分二貼水煎服。(正傳)
方藥合編原文	8.四逆湯:治三陰 脈遲 身痛 及四肢厥冷 * 감초炙 3錢 건강炮 2錢半 생부자 半枚
修正部分	
解 說	문제점으로 뚜렷이 지적될 것은 없고, 다만 방약합편에선 각 약물의 용량을 1/2로 축소시킨 것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학교실

東醫寶鑑原文	부자이증탕[附子理中湯]《寒下：中寒證》◆治中寒口噤身強直附子炮人參白朮乾薑炮甘草炙各一錢右剉作一貼水煎服.(三因)○一方加吳茱萸肉桂當歸陳皮厚朴各等分煎服亦名附子理中湯.(回春)
方藥合編原文	9.附子理中湯:治中寒 口噤 身強直 ①一方加 오수유 육계 당귀 진피 후박 [活套]與[理中湯,建理湯]等參看 * 부자炮 인삼 백출 건강炮 감초 各1錢
修正部分	甘草→甘草炙
解 說	本方の 加味에서 용량의 표시가 없는데 동의보감에 보이는 各等分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생맥산[生脉散]《暑：夏暑宜補氣》◆麥門冬二錢人參五味子各一錢水煎夏月代熱水飲之或加黃芪甘草各一錢或加黃栢二分服之則令人氣力湧出生用.(入門)○火熾之極金伏之際寒水絕體於斯時也故急救之以生脉散除其濕熱肺欲收心苦緩皆酸以收之心火盛則甘以瀉之故人參之甘佐以五味子之酸孫真人曰夏月常服五味子以補五藏氣是也麥門冬之微苦寒能滋水之源而清肅肺氣微加黃栢之苦寒以滋水之流除兩足之痿弱也.(東垣)○人參麥門冬五味子生脉脉者元氣也.(東垣)
方藥合編原文	12.生脉散:暑月常服 代熱水飲之 ①加황기 감초 各1錢 或加생황백 2分 令人氣力湧出 [活套]加향유 백편 두尤好 或合[醍醐湯](286面上)亦可 * 맥문동 2錢 인삼 오미자 各1錢
修正部分	
解 說	방약합편에서는 이동원의 方解가 없으나 동의보감 내에서의 설명은 매우 중요한 방제학적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東醫寶鑑原文	청서익기탕[清暑益氣湯]《暑：夏暑宜補氣》◆治長夏濕熱蒸人四肢困倦精神短少懶於動作身熱煩渴小便黃而數大便溏而頻或泄或痢不思飲食氣促自汗蒼朮一錢半黃芪升麻各一錢人參白朮陳皮神麴澤瀉各五分酒黃栢當歸青皮麥門冬乾葛甘草各三分五味子九粒右剉作一貼水煎服.(東垣)○此藥參朮黃芪升麻甘草麥門冬當歸五味子黃栢乾葛是清暑補氣也蒼朮神麴陳皮青皮澤瀉瀉脾也.(東垣)
方藥合編原文	13.清暑益氣湯:治長夏四肢困倦 身熱 煩渴 泄利 自汗 * 창출 1錢半 황기 승마 各1錢 인삼 백출 진피 신국 택사 各5分 황백酒炒 당귀 건강 청피 맥문동 감초 各3分 오미자 9粒
修正部分	
解 說	病因이 생략되어 있으며, 그리고 다른 主治의 생략이 뚜렷하므로 삽입되어야 한다. 李東垣의 처방설명이 돋보인다.

東醫寶鑑原文	상귀익원탕[參歸益元湯]《暑：注夏病》◆治注夏病其證頭眩眼花腰痠脚弱五心煩熱口苦舌乾精神困倦好睡飲食減少脉數無力當歸白芍藥熟地黃白茯苓麥門冬各一錢陳皮如母黃栢並酒炒各七分人參五分甘草三分五味子十粒右剉作一貼入棗一枚米一撮水煎服.(回春)
方藥合編原文	14.參歸益元湯:治注夏病 食減 脈數無力 * 당귀 백작약 숙지황 各1錢 백복령 맥문동 진피 지모酒炒 황백酒炒 各7分 인삼 5分 감초 3分 오미자10粒 갱미1撮 棗1枚
修正部分	白茯苓, 麥門冬 各7分 → 各1錢, 갱미 → 米
解 說	① 注夏病에 대한 설명을 너무 축소시켰다고 생각되고 ②백복령, 맥문동까지 각1錢으로 기록해 야함을 빠뜨렸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是正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당귀보혈탕[當歸補血湯]《內傷：內傷病始爲熱中終爲寒中》◆因飢困勞役致面紅目赤身熱引飲其脉洪大而虛重按全無此血虛發熱證似白虎惟脉不長實爲辨耳誤服白虎湯必死宜服此藥黃芪五錢當歸酒洗二錢右剉作一貼水煎服.(東垣)
方藥合編原文	17.當歸補血湯:肌熱 大渴 目赤 脈洪大 而虛重按無力症 似 [白虎湯] 惟脈不長實 誤服必死 ①一名 [歸芪湯] [活套]或인삼 숙지황 계지 부자之類 隨宜加減 少加황련爲引 * 황기 5錢 당귀 2錢
修正部分	當歸 → 當歸酒洗
解 說	病機인 血虛發熱을 증시한다면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내용의 갑작스런 삭제로 인한 해석의 오류를 범할 소지가 많으므로 올바른 전달을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當歸의 修治가 빠진 것은 삽입하는 것이 당연할 것으로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p>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內傷：勞倦傷治法》◆治勞役太甚或飲食失節身熱而煩自汗倦怠黃芪一錢半人參白朮甘草各一錢當歸身陳皮各五分升麻柴胡各三分右剉作一貼水煎服。(東垣)○一方黃芪一錢半人參白朮陳皮當歸甘草各一錢升麻柴胡各五分加黃栢三分以滋腎水紅花二分入心養血。(醫鑑)○夫脾胃一虛肺氣先絕故用黃芪以益皮毛而閉腠理不令自汗上喘氣短損其元氣用人參以補之心火乘脾用灸甘草之甘溫以瀉火熱而補胃中元氣若脾胃急痛腹中急痛者宜多用之此三味除濕熱煩熱之聖藥也白朮苦甘溫除胃中熱利腰臍間血升麻柴胡苦平味之薄者升胃中之清氣又引黃芪甘草甘溫之氣味上升能補衛氣之散解而實其表又緩帶脉之縮急當歸以和血脉橘紅以理胸中之氣助陽氣上升以散滯氣此立方本旨也。○凡脾胃不足之證須用升麻柴胡引脾胃中清氣行於陽道及諸經生發陰陽之氣故凡治脾胃藥多以升陽補氣名之者此也。(東垣)</p> <p>도씨보중익기탕[陶氏補中益氣湯]《寒下：外感挾內傷證》◆治內傷氣血外感風寒頭痛身熱惡寒自汗沈困無力人參生地黄黃芪當歸川芎柴胡陳皮羌活白朮防風各七分細辛甘草各五分右剉作一貼入薑三片棗二枚葱白二莖水煎服如元氣不足加升麻三分。(入門)</p>
方藥合編原文	<p>22.補中益氣湯:治勞役太甚 或飲食失節 身熱 自汗 ①加황백3分 홍화2分 入心養血 ②自汗加 부자마황근 부소맥 ③久痢變水加 부자 ④鼻塞加 맥문동 산치 ⑤遺尿加 산약 오미자 ⑥痢後噉加 부자 죽여 생강 ⑦滑泄加 가자 옥두구 ⑧孕婦小腹墜氣陷加 승마 방풍 ⑨渾身麻氣虛加 모과 오약 향부자 청피 방풍 천궁 少加계지 ⑩肺寒脫肛加 가자1錢 저근백피少許 (11)[陶氏補中益氣湯]인삼 백출 황기 당귀 시호 진피 并7分 加생지 천궁 강황 방풍 各7分 감초5分 或去승마 入총백 생강 대조 治內外感 頭痛身熱自汗</p> <p>[活套]去황기 백출 加숙지황 산약 名[補陰益氣煎] (12)汗多加 계지2錢 방풍1錢 부소맥 오매 (13)氣虛尿澀加 빈랑 목향 或加 차전자 택사 (14)虛痢下重加 빈랑 목향 황련 或加오수유 腹痛加 계심 有熱加 대황微 利之 (15)氣虛潮熱 倍시호 加별갑</p> <p>* 황기 1錢半 인삼 백출 감초 各1錢 당귀신 진피 各5分 승마酒洗 시호酒洗 各3分</p>
修正部分	<p>승마酒洗 시호酒洗 → 승마 시호, ①加황백3分 → 加黃栢三分以滋腎水</p>
解 說	<p>方藥合編에서의 柴胡 升麻의 修治는 東醫寶鑑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補中益氣湯의 重要病症인 '倦怠'가 빠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陶氏補中益氣湯에서는 細辛이 빠졌으며 내용상 밀줄 친 부분은 삽입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또한 李東垣의 藥理學的 설명이 方藥合編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은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加味方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예:⑨渾身麻氣虛加 모과→목향), 이는 앞으로 재차 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p>

東醫寶鑑原文	<p>삼령백출산[參苓白朮散]《內傷：內傷調補藥》◆治內傷脾胃虛弱飲食不進或吐瀉凡大病後調助脾胃此藥極妙人參白朮白茯苓山藥甘草炙各三錢薏苡仁蓮肉桔梗白扁豆縮砂各一錢半右爲末每二錢棗湯點服○剉取一兩入薑三棗二水煎服亦可。(入門)</p>
方藥合編原文	<p>25.參苓白朮散:大病後 調助脾胃</p> <p>[用法]左末 每2錢 棗湯調下 ①剉取1兩 薑3棗2 煎服亦可</p> <p>[活套]②痞滿 去의이 加진피 백두구 ③下血日久加 지유형개炒黑 건강炒黑 오매 ④氣陷加 승마 방풍</p> <p>* 인삼 백출 백복령 산약 감초炙 各3錢 의이인 연육 길경 사인 백편두 各1錢半</p>
修正部分	
解 說	<p>평범한 病因일지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 삽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p>

東醫寶鑑原文	<p>태화환[太和丸]《內傷：內傷調補藥》◆治內傷脾胃虛損不思飲食肌體羸瘦面色萎黃開胸快膈清鬱化痰消食調理之劑也白朮土炒四兩白茯苓白芍藥神麴炒麥芽炒各二兩半香附便炒當歸枳實各二兩龍眼肉(無則益智代之)白豆蔻各一兩三錢半夏一兩二錢陳皮黃連薑汁炒山查肉各一兩甘草炙七錢人參木香各五錢右爲末荷葉煎湯打陳米爲糊和丸梧子大米飲下百丸。(回春)</p>
方藥合編原文	<p>26.太和丸:治脾胃虛損 不思飲食 體瘦 面黃 開胸 快膈 清鬱 化痰</p> <p>[用法]左末 荷葉煎湯 打陳米 爲糊丸 梧子大 米飲下 100丸</p> <p>[活套]分作20貼用 亦好 ①看其虛實 冷熱 隨症加減</p> <p>* 백출土炒 4兩 백복령 백작약 신국炒 맥아炒 各2兩半 변향부炒 당귀 지실 各2兩 용안육無則代 익지인 백두구 各1兩3錢 반하 1兩2錢 진피 황련薑炒 산사육 各1兩 감초炙 7錢 인삼 목향 各5錢</p>
修正部分	
解 說	<p>내용상 구애됨은 없다고 사료되나 삽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p>

東醫寶鑑原文	구선왕도고[九仙王道糕]《內傷：內傷調補藥》◆養精神扶元氣健脾胃進飲食補虛損生肌肉除濕熱蓮肉山藥炒白茯苓薏苡仁各四兩麥芽炒白扁豆炒芡仁各二兩柿霜一兩白砂糖二十兩右細末入粳米粉五升蒸糕晒乾任意食之米飲送下.(回春)
方藥合編原文	27.九仙王道糕:養神扶元 健脾進食 [用法]左末 入갱미粉5升 蒸糕晒乾 任意食之 米飲送下 * 연육 산약炒 백복령 의이인 各4兩 맥아炒 백편두炒 검은 各2兩 시상 1兩 사당20兩
修正部分	
解 說	除濕熱은 病理로서 내용에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리라고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대조환[大造丸]《虛勞：陰虛用藥》◆治六脉虛微血氣衰弱此方滋陰補陽養壽之聖藥也紫河車一具泔浸洗淨盛竹器長流水中浸一刻以回生氣盛小瓦盆於木甌或瓦甌內蒸極熟如糊取出先傾自然汁別貯將河車石臼內擣千下同前汁和勻生乾地黃四兩龜板杜冲天門冬黃柏鹽酒炒各一兩半牛膝麥門冬當歸身各一兩二錢人參一兩五味子五錢右爲末河車汁和米糊爛搗作丸以溫酒或鹽湯下百丸日再服.(集略)
方藥合編原文	28.大造丸:脈虛 血氣衰弱 [調劑法]①자하거1具 泔浸洗淨 盛木器 長流水浸1刻 以回生氣 盛小瓦盆 於木甌 或瓦甌內蒸熟 取出先傾自然汁 別貯將河車 石臼內千搗 同前汁和均 [用法]左(자하거外 殘餘10味)末 河車膏 和糊爛搗 作丸梧子大 溫酒或鹽湯下 100丸 日再服 * 자하거 1具 생건지황 4兩 귀관 두충 천문동 황백酒炒 各1兩半 우슬 맥문동 당귀신 各1兩2錢 인삼 1兩 오미자 5錢
修正部分	盛木器 → 盛竹器, 黃柏酒炒 → 黃柏鹽酒炒, 河車膏 和糊 → 河車汁和米糊
解 說	黃柏의 修治는 고쳐야 하며, 내용상의 큰 변화는 없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내용도 고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쌍화탕[雙和湯]《虛勞：陰陽俱虛用藥》◆治心力俱勞氣血皆傷或房室後勞役或勞役後犯房及大病後虛勞氣乏自汗等證白芍藥二錢半熟地黃黃芪當歸川芎各一錢桂皮甘草各七分半右剉作一貼薑三棗二水煎服○一名雙和散乃建中湯四物湯合爲一方大病後虛勞氣乏最效.(諸方)
方藥合編原文	31.雙和湯:治氣血俱傷 或房室後勞役 或勞役後犯房 及大病後氣乏自汗 ①乃建中四物方也 * 백작약 2錢5分 숙지황 황기 당귀 천궁 各1錢 계피 감초 各7分半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解 說	'心力俱勞'는 삽입가능하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虛勞：陰陽俱虛用藥》◆治同上又治虛勞自汗人參白朮白茯苓甘草熟地黃白芍藥川芎當歸黃芪肉桂各一錢右剉作一貼薑三棗二水煎服○一名十補湯又名十全散黃芪建中湯八物湯合爲一方治氣血俱衰陰陽並弱法天地之成數也.(海藏)
方藥合編原文	33.十全大補湯:治同上 [活套]一切虛損 皆可隨症加減 ①凡癰疽 邪尚未淨加 금은화 조각자 천산갑之類 或膿流清水 或久不收斂 倍人삼 계지 황기 加생강 부자 연육之類 * 八物湯(上統32) 加 황기 육계 各1錢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解 說	東醫寶鑑에선 모든 약물이 1錢씩되어 있으나, 方藥合編의 八物湯은 여덟가지 약물이 1錢2分으로 되어 내용상 용량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東醫寶鑑式으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東醫寶鑑原文	고진음자[固眞飮子]《虛勞：陰陽俱虛用藥》◆治陰陽兩虛氣血不足飲食少思五心煩熱潮熱自汗精氣滑脫行步無力時或泄瀉脉度沈弱咳嗽痰多將成勞瘵熟地黃一錢半人參山藥當歸黃芪蜜炒黃栢鹽酒炒各一錢陳皮白茯苓各八分杜冲炒甘草灸各七分白朮澤瀉山茱萸破故紙炒各五分五味子十粒右剉作一貼水煎服盖門冬地黃雖滋陰久則滯胃滯經致生癰疽金石桂附雖助陽久則積溫成熱耗損眞陰惟此方備五味合氣冲和養血理脾胃充腠理補五藏無寒熱偏併過不及之失中年已上之人可以常服。(入門)
方藥合編原文	34.固眞飮子:治陰陽兩虛 氣血不足 潮熱 自汗 或泄瀉 脈弱 咳嗽痰多 中年人可以常服 [活套]①大虛 倍인삼 숙지황 ②虛冷 去황백 加계지 부자 * 숙지황 1錢半 산약 인삼 당귀 황기蜜炒 황백鹽酒炒 各1錢 진피 백복령 各8分 두충炒 감초炙 各7分 백출 택사 산수유 파고지炒 各5分 오미자10粒
修正部分	
解 說	일출진 부분의 병증의 삽입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며, 또한 부작용이 없음을 강조한 약리적 설명은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인삼양영탕[人參養榮湯]《虛勞：陰陽俱虛用藥》◆治虛勞成損氣血不足消瘦倦怠氣短食少或寒熱自汗白芍藥酒炒二錢當歸人參白朮黃芪蜜炒肉桂陳皮甘草灸各一錢熟地黃五味子防風各七分半遠志五分右剉作一貼薑三棗二水煎服○虛甚則蜜丸常服亦可。(回春)
方藥合編原文	35.人參養榮湯:治勞損 氣血不足 氣短 少食 寒熱 自汗 * 백작약酒炒 2錢 당귀 인삼 백출 황기蜜炒 육계 진피 감초炙 各1錢 숙지황 오미자 방풍 各7分 半 원지 5分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解 說	내용상 큰 의미변화는 없다고 사료됨.

東醫寶鑑原文	고암심신환[古庵心腎丸]《虛勞：心虛藥》◆治勞損心腎虛而有熱驚悸怔忡遺精盜汗且暗耳鳴腰痛脚痿久服黑鬚髮令人有子熟地黃生乾地黃山藥茯神各三兩當歸澤瀉黃栢鹽酒炒各一兩半山茱萸枸杞子龜板酥灸牛膝黃連牧丹皮鹿茸酥灸各一兩生甘草五錢朱砂一兩(爲衣)右爲末蜜丸梧子大朱砂爲衣空心鹽湯或溫酒吞下百丸○法曰心惡熱腎惡燥此方清熱潤燥補精益血治心腎之聖藥也。(丹心)○凡人年老有患無子者有患白髮者予曰無子責乎腎髮白責乎心何則腎主精精盛則孕成心主血血盛則髮黑今也嗜慾無窮而虧其本然之眞憂慮太過而損其天然之性心君火也腎相火也君火動而相火翁然從之相火動則天君亦昏亂而不寧矣是二者有相須之道焉蓋天地間不過陰陽五行而已五行有相生者有相制者今心火上炎由乎腎水虧而不能制耳是髮白不獨由於心也腎精妄泄由乎心之所逼而使之無子不獨由於腎也今粗具一方補血生精寧神降火庶乎兼治。(方廣)
方藥合編原文	36.古庵心腎丸:治腎虛有熱 怔忡 盜汗 遺精 [用法]左末 煉蜜丸 梧子大朱砂爲衣 空心鹽湯 或溫酒吞下 100丸 [活套]無熱去 황련 황백 ①咳嗽加 굴피 패모 ②虛甚 倍숙지황 녹용 加인삼 ③或作20貼用 * 숙지황 생건지황 산약 백복신 各3兩 당귀 택사 황백鹽酒炒 各1兩半 산수유 구기자 귀판酥炙 우슬 황련 목단피 녹용酥炙 各1兩 생강초 5錢 주사爲衣 1兩
修正部分	
解 說	東醫寶鑑에 나온 方廣의 내용설명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삽입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공진단[拱辰丹]《虛勞：肝虛藥》◆凡男子方當壯年而眞氣猶怯此乃稟賦素弱非虛而然僅燥之藥尤宜速戒滋益之方羣品稍衆藥力細微難見功效但固天元一氣使水升火降則五藏自和百病不生此方主之鹿茸酥灸當歸山茱萸各四兩麝香五錢另研右爲末酒麪糊和丸梧子大溫酒或鹽湯下七十丸至百丸。(得效)
方藥合編原文	38.拱辰丹:稟賦虛弱 但固天元一氣 使水升火降 百病不生 [用法]左末 酒麵和丸 梧子大 溫酒或鹽湯下 70丸至100丸 或作湯用 [活套]加인삼 숙지황尤妙 ①冷加계지 부자 ②咳加굴피 패모 오미자 ③사향代入 침향或母향 * 녹용酥炙 당귀 산수유 各4兩 사향 5錢
修正部分	
解 說	내용을 간략하게 잘 정리하였다고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꺍피전원[橘皮煎元]《虛勞：脾虛藥》◆治脾胃大虛不進飲食肌肉消瘦虛弱憔悴及久痼久痢橘皮五兩甘草三兩三錢當歸葶藶肉菘蓉吳茱萸厚朴桂陽起石巴戟石斛附子菟絲子牛膝鹿茸杜仲乾薑各一兩右爲末用酒一升半於磁器入橘皮末煎熬如餡却入諸藥末攪勻搗丸梧子大空心溫酒鹽湯下五七十丸。(入門)
方藥合編原文	39.橘皮煎元:治脾胃俱虛 及久痼久痢 [用法]左末 用酒 1升5合先於磁器入꺍피末 煎熬如餡却 入諸藥末 攪均搗丸 梧子大 空心溫酒鹽湯下 50,70丸 [活套]陽起石以有燥血之慮去之 倍加인삼속지황甚妙 此南原任應會法也 ①分作20貼用 亦好 * 꺍피 5兩 갈초 3兩3錢 당귀 비해 육종용 오수유 후박 관계 양기석 파극 석곡 부자炮 토사자 우슬 녹용 두충 건강 각1兩
修正部分	附子炮 → 附子
解 說	내용상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는다.

東醫寶鑑原文	육미지황원[六味地黃元]《虛勞：腎虛藥》◆治虛勞腎氣衰弱久新憔悴寢汗發熱五藏齊損瘦弱虛煩骨蒸痿弱脉沈而虛○此藥專補左尺腎水兼理脾胃少年水虧火旺陰虛之證最宜服之○凡人年幼被誘慾太早者根本受傷及稟賦薄者又剛喪之過隱諱不敢實告以致元氣虛憊或遺精盜汗神疲力怯飲食不生肌肉面白五心發熱夏先惡熱冬先怕寒腰膝重頭暈目眩故曰水一虧則火必勝火動則肺金受剋而痰嗽作矣或勞汗當風面生粉刺則虛損成矣宜服此藥可保無虞。(回春)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腎臟：腎病治法》◆治同上熟地黃八兩山藥山茱萸各四兩澤瀉牧丹皮白茯苓各三兩右爲末蜜丸梧子大溫酒鹽湯空心吞下五七十丸。(正傳)○血虛陰衰熟地黃爲君精滑山茱萸爲君小便或多或少或赤或白茯苓爲君小便淋瀝澤瀉爲君心氣不足牡丹皮爲君皮膚乾澁山藥爲君。(綱目) 신기환[腎氣丸]《虛勞：腎虛藥》◆治虛勞腎損○六味地黃元一劑加五味子四兩乃滋肺之源以生腎水也。(易老)○水泛爲痰之聖藥血虛發熱之神劑又能補肝蓋腎肝之病同一治故也。(回春) 팔미환[八味丸]《腎臟：腎病治法》◆治命門火不足陽虛熟地黃八兩山藥山茱萸各四兩牡丹皮白茯苓澤瀉各三兩肉桂附子炮各一兩右爲末蜜丸梧子大空心溫酒或鹽湯下五七十丸若加五味子名曰腎氣丸。(仲景)○又治老年水火俱虧腎氣虛乏下元冷懨腰痛脚軟夜多游尿面黑口乾耳焦枯。(入門)
方藥合編原文	40.六味地黃元:治腎水不足 ①加오미자4兩 名[腎氣丸] 此乃滋肺之源 以生腎水 ②加육계부자炮 各1兩 名[八味元]治命門 陽虛 ③陰虛浮腫加 우슬 차전자 名[金匱腎氣丸] ④遺尿無度 去택 加익지인 ⑤老人及孕婦轉脛 倍택사 ⑥冷淋 先寒戰 不得洩 宜八味元 [用法]左末 蜜丸梧子大 空心溫酒 或鹽湯下 5,70丸 ⑦[腎氣丸]오미자俗用 1兩 [活套]亦分作20貼用 ⑧陰虛浮腫 減속지황 加우슬 차전자 계지 부자 ⑨兼疸加인진 ⑩傷寒 過經 虛熱不退 口燥 舌乾 脈虛 等症 倍인삼 加맥문동 꺍피之類 (11)[加減八味元]消渴久服 永除消疾 卽腎氣元也 * 속지황 8兩 산약 산수유 各4兩 백복령 목단피 택사 各3兩
修正部分	六味地黃元 → 六味地黃丸
解 說	①方藥合編의 服用法에 따른다면 六味地黃丸으로 改稱하여야 한다. ②綱目的 君藥의 變化方法論은 삽입되어야 한다. ③八味丸에서 火不足은 삽입을 고려할 만하다고 사료된다.

東醫寶鑑原文	증익귀용원[增益歸茸元]《虛勞：腎虛藥》◆治虛勞腎衰補精血養陽氣熟地黃鹿茸五味子大當歸各四兩山藥山茱萸大附子炮牛膝酒浸肉桂各二兩白茯苓牡丹皮澤瀉酒浸一宿各一兩右爲末用鹿角膠半斤剉入石器中入酒少許熔化和丸梧子大空心溫酒或鹽湯下五七十丸一法膠作末酒和作丸亦可。(得效)
方藥合編原文	41.增益歸茸丸:治腎衰 補精 養陽 [用法]左末 入 녹각교半斤 入石器中 入酒少許 熔化丸如梧子 空心溫酒或鹽湯下 5,70丸 一法 녹각교 作末 酒和作丸 亦可 * 속지황 녹용 오미자 대당귀 各4兩 산약 산수유 대부자炮 우슬酒浸 관계 各2兩 백복령 목단피 택사酒浸 各1兩
修正部分	補精 養陽 → 補精血養陽氣
解 說	내용상으로는 處方名을 丸으로 할 수 있으나 동의보감의 筆寫라는 측면에서 보면 元으로 改稱하여야 할 것이며, 내용에서도 '血'字와 '氣'字는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인숙산[仁熟散]《膽腑：膽病治法》◆治膽虛恐畏不能獨臥柏子仁熟地黃各一錢人參枳殼五味子桂心山茱萸甘菊茯苓神枸杞子各七分半右剉作一貼水煎服或爲末溫酒調二錢服之.(入門)
方藥合編原文	44.仁熟散:治心膽虛 恐畏 不能獨臥 [用法]或末 溫酒調2錢服 * 백자인 숙지황 各1錢 인삼 지각 오미자 계심 산수유 감국 백복신 구기자 各7分半
修正部分	
解 說	내용상으로는 方藥合編에 '心'字를 삽입해도 무방하나 轉寫의 측면에선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소건중탕[小建中湯]《虛勞：虛勞通治藥》◆治虛勞裏急腹中痛夢寐失精四肢痠疼手足煩熱咽乾口燥白芍藥五錢桂枝三錢(無則用薄桂)甘草灸一錢右剉作一貼入生薑五片大棗四枚水煎至半去滓下膠飴(即黑糖)半盞(即一兩)再煎烱化服之.(仲景)○芍藥味酸於土中瀉木爲君飴糖甘草之溫補脾胃爲臣水拔木勢亦來侮土故脉弦而腹痛肉桂大辛熱佐芍藥以退寒水薑棗甘辛溫發散陽氣行於經絡皮毛爲使故建中之名始于此焉.(東垣)○治虛勞氣虛自汗本方加黃芪蜜炒一錢名曰黃芪建中湯○治虛勞血虛自汗本方加當歸一錢名曰當歸建中湯服法同上.(仲景)
方藥合編原文	45.小建中湯:治虛勞 裏急 腹痛 夢遺 咽乾 ①自汗加 황기 名[黃耆建中湯] ②血虛加 당귀 名[當歸建中湯] ③合[理中湯] 名[建理湯]治虛冷 腹痛 [活套]積氣疝氣上攻加 회향 오수유 호초 원호색 전갈之類 ④虵厥加 용안육5錢 화초 오매 사군자之類 ⑤虛甚加 인삼3,5錢 * 백작약 5錢 계지 3錢 감초炙 1錢 薑5片 棗4枚 黑糖 1兩 烱化服
修正部分	황기 → 黃芪蜜炒一錢, 당귀 → 當歸一錢
解 說	①治症의 附加된 삽입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며, ②煎湯방법론이 方藥合編에서 너무 축소하였다고 생각되며, ③李東垣의 처방에 대한 해석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④黃耆建中湯에서 黃芪의 修治와 용량이, 當歸建中湯에서 當歸의 용량이 각각 정확히 轉寫되지 못하였기에 訂正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東醫寶鑑原文	비화음[比和飲]《嘔吐：嘔吐治法》◆治胃虛嘔吐月餘不納水穀聞食氣即嘔聞藥亦嘔人參白朮茯苓神麴炒各一錢薑香陳皮縮砂甘草各五分陳倉米一合右剉作一貼先以順流水三升泡伏龍肝末澄清取一升半入藥及薑三棗二同煎至七分去滓稍冷服日二三遂納而不吐別以陳倉米煎湯時時啜之全愈.(醫鑑)
方藥合編原文	50.比和飲:治胃虛 嘔吐 聞食即嘔 聞藥即嘔 [用法]先以順流水3升泡 伏龍肝澄清取 1升 半煎至7分冷服日三 [活套]虛甚 倍인삼5,7錢 加백두구 1錢 * 인삼 백출 백복령 신곡 各1錢 광향 진피 사인 감초 各5分 薑3片 棗2枚 陳倉米1合
修正部分	卽 → 亦, 神麴 → 神麴炒
解 說	①한자형식상 '聞藥即嘔'에서 卽을 亦으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 ②神麴의 修治는 삽입되어야 한다. ③藥과 生薑 大棗를 넣는 시간이 方藥合編에선 表記되지 않아 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東醫寶鑑原文	정향시체산[丁香柿蒂散]《咳嗽：咳逆易治難治證》◆治大病後胃中虛寒咳逆丁香柿蒂人參白茯苓橘皮良薑半夏製各五錢甘草二錢半生薑七錢半右爲羅末每三錢水煎乘熱頓服或調蘇合香元服之尤妙一方七味各一錢甘草半錢剉煎服亦可.(綱目)○一名溫中散.(醫鑑)
方藥合編原文	54.丁香柿蒂散:治大病後 胃中虛寒 咳逆 [活套]或[蘇合元]調服 * 정향 시체 인삼 백복령 굴피 양강 반하 各1錢 감초 5分 薑7片
修正部分	반하 → 半夏製
解 說	一方의 내용을 수록하고 原方을 기록하지 않은 특징이 있는데 왜 원방이 선택되지 않았는지는 앞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東醫寶鑑原文	復元丹《浮腫：水腫治法》：夫心腎眞火 能生脾肺眞土 今眞火既虧 不能滋養眞土 故土不制水 水液妄行三焦不瀉機樞不運 腫脹滿溢 喘息奔急 股冷舌乾 不能正偃 小便不通 澤瀉 二兩半 附子炮 二兩 木香 茴香炒 川椒 獨活 厚朴 白朮略炒 橘皮 吳茱萸 桂心 各一兩 肉豆蔻煨 檳榔 各五錢 右爲末 糊丸 梧子大 紫蘇湯下五十丸 此藥世傳屢驗其間 君臣佐使與造物同妙 當屏去諸藥 一日三服 且禁慾絕鹹半年 (得效)
方藥合編原文	56. 復元丹: 心腎眞火 能生脾肺眞土 今眞火既虧 不能滋養眞土 土不制水 腫脹 喘急 股冷 舌乾 尿閉 [用法] 左末 糊丸梧子大 蘇葉湯下 50丸 1日3服 [活套] 或分作10貼用 ① 氣虛 加人蔘 3,5錢 澤瀉 2兩半 附子炮 2兩 木香 茴香 川椒 獨活 厚朴 白朮略炒 橘皮 吳茱萸 桂心 各1兩 肉豆蔻煨 檳榔 各5錢
修正部分	茴香 → 茴香炒
解 說	① 병리기전의 삽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되고, ②茴香的 修治는 첨가되어야 하며, ③ 禁忌事項도 당연히 삽입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東醫寶鑑原文	四獸飲《痲瘋：痲癩》：治七情聚痰 五藏氣虛 癩久不已 人蔘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草果 甘草 烏梅 生薑 大棗 各一錢 右剉作一貼 拌鹽少許 淹食頃 以皮紙包裹 水浸濕 慢火煨香熟 取出水煎服 未發前連進數貼即效 (得效)
方藥合編原文	57. 四獸飲: 治七情聚痰 五臟氣虛 癩久不已 ①未發前 連進數貼 [用法] 左拌鹽少許 淹食頃以皮紙包裹 水浸濕煨 香熟取出煎服 [活套] 虛甚 倍蔘 3,5錢 ②寒多 倍薑 5,7錢 人蔘 白朮 白茯苓 陳皮 半夏 草果 甘草 烏梅 生薑 大棗 各1錢
修正部分	熱 → 熟
解 說	方藥合編의 熟을 東醫寶鑑의 熟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冷附湯《痲瘋：痲癩》：痲疾無過 是痰實而脾胃弱 停于胸膈 所以五更冷服使藥下達 壯脾胃去痰實也 大附子 一箇 炮去皮臍 右切片 分二貼 每一貼 入薑十片 水煎 去淫露一宿 五更初冷服 (得效)
方藥合編原文	58. 冷附湯: 痲疾無過 是痰實 脾弱 停于胸膈 ① 水煎 露一宿 五更冷服 使藥下達 大附子炮 半枚 生薑 10片
修正部分	
解 說	빠진 '胃'字를 삽입하고 修治의 복잡성이 있긴 하지만 내용상 없어서는 곤란하므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東醫寶鑑原文	瓊玉膏《身形：養性延年藥餌》：填精補髓 調眞養性 返老還童 補百損 除百病 萬神俱足 五藏盈溢 髮白復黑 齒落更生 行如奔馬 日進數服 終日不飢渴 功效不可盡述 一料分五劑可救癱瘓五人 一料分十劑可救勞瘵十人 若二十七歲服起壽可至三百六十 若六十四歲服起壽可至五百年 生地黃 十六斤 搗絞取汁 人蔘細末 二十四兩 白茯苓細末 四十八兩 白蜜煉去滓 十斤 右和勻 入磁缸內 以油紙五重厚布 一重緊封缸口置銅鍋內 水中懸胎令缸口出水上 以桑柴火煮三晝夜 如鍋內水減則用煖水添之 日滿取出再用蠟紙緊封缸口 納井中浸一晝夜 取出再入舊湯內 煮一晝夜以出水氣 乃取出先用少許祭天地神祇 然後每取一二匙 溫酒調服 不飲酒白湯下 日進二三服 如遇夏熱 置陰涼處或藏水中或埋地中 須於不聞鷄犬聲幽淨處 不令婦人喪服人見之 製時終始勿犯鐵器 服時忌食葱蒜蘿蔔醋酸等物 (入門) ○ 衛生方 生地黃 八斤 人蔘 三十二兩 白茯苓 二十四兩 白蜜 五斤 ○ 本朝永樂中太醫院會議 加天門冬 麥門冬 地骨皮 各八兩 進御服食賜號 益壽永眞膏
方藥合編原文	61. 瓊玉膏: 填精 補髓 髮黑 齒生 萬神俱足 除百病 [製法] 左和均 入磁缸內 以油紙五重 厚布一重 緊封缸口置銅鍋內 水中懸 胎令缸口出水上 以桑火煮三晝夜 如鍋內水減則 用煖水添之 日滿取出(換紙紮口 以蠟封固 懸井中 一日 取起)再入舊湯內 煮一晝夜 以出水氣 乃取出 先用少許 祭天地神祇 然後 每1,2匙 溫酒調服 不飲酒 白湯下 日2,3服 須於不聞鷄犬聲 不令婦人 喪服人 見之 ①一方加 琥珀 沈香 各5錢 ② 加天門冬 枸杞 各1斤 名益壽永眞膏 ③一方 加天門冬 麥門冬 地骨皮 各8兩 生地黃取汁 16斤 人蔘末 24兩 白茯苓末 48兩 白蜜煉 10斤
修正部分	
解 說	①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화시켜 잘 정리하였으며, 또한 효능의 과장을 줄이기 위해 내용상 빼 버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으며, ② 보관방법에 대한 것과 금기에 대한 것은 삽입되어야 마땅하리라고 판단된다. ③ 그리고 益壽永眞膏는 동의보감에서 보듯이 끝부분으로 이동시켜야 할 것이다.

東醫寶鑑原文	四君子湯《氣：少氣》：補真氣虛弱 治氣短氣少 人參去蘆 白茯苓 白朮 甘草炙 各一錢二分半 右剉 水煎服(局方) ○ 方氏曰 人參補肺扶脾 白朮健脾燥濕 茯苓降氣滲濕 甘草補胃和中 譬如寬厚和平之君子 不爲奸險卒暴之行也 ○ 醫鑑曰 人參補元氣 白朮健脾胃 茯苓滲濕 又引人參下行補下焦元氣(入門)
方藥合編原文	64. 四君子湯：補真氣虛弱 治氣短氣少 ① 虛損 加當歸 黃芪 名人參黃芪湯 ② 合四物湯 名八物湯 又加黃芪 肉桂 各1錢 名十全大補湯 ③ 加陳皮 名異功散 加陳皮 半夏 名六君子湯 ④ 虛泄 加黃芪 升 柴 防風 [活套] 冷加 桂枝 附子 ⑤ 腫加 豬苓 澤瀉 ⑥ 暑加 香薷 白扁豆 白檀香 ⑦ 虛泄 合五苓散(下統10) 人參 白朮 白茯苓 甘草炙 各1錢2分半
修正部分	人參 → 人參去蘆
解 說	

東醫寶鑑原文	四物湯《血：通治血病藥餌》：通治血病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各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 水煎服(局方) ○ 一方 春倍川芎 夏倍芍藥 秋倍地黃 冬倍當歸 ○ 春加防風 夏加黃芩 秋加天門冬 冬加桂枝(綱目) ○ 當歸和血歸經 芍藥涼血補腎 生地黃生血寧心 熟地黃補血滋腎 川芎則行血通肝(丹心) ○ 劉宗厚曰：欲求血藥其四物之謂乎 夫川芎血中氣藥也 通肝經 性味辛散 能行血滯於氣也 地黃血中血藥也 通腎經 性味甘寒 能生真陰之虛者也 當歸分三治血中主藥也 通肝經 性味辛溫 全用能活血 各歸其經也 芍藥陰分藥也 通脾經 性味酸寒 能涼血 又治血虛腹痛 若求陰藥之屬必於此而取則焉
方藥合編原文	68. 四物湯：通治血病 ① 脚痛血熱 加知柏 牛膝 ② 虛痒 加黃芩 調浮萍草末服 ③ 春倍川芎 夏倍芍藥 秋倍地黃 冬倍當歸 ④ 春加防風 夏加黃芩 秋加天門冬 冬加桂枝 [活套] 合方法 見四君子湯(上統64) ⑤ 血虛經水不調 加香附子 益母草 吳茱萸 肉桂 人參之類 熟地黃 白芍藥 川芎 當歸 各1錢2分半
修正部分	
解 說	

東醫寶鑑原文	參芪湯《小便：小便不禁》：治氣虛遺尿 人參 黃芪蜜炒 白茯苓 當歸 熟地黃 白朮 陳皮 各一錢 益智仁 研八分 升麻 肉桂 各五分 甘草三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 空心服 老人加炮附子(回春)
方藥合編原文	71. 參芪湯：治氣虛 遺尿 ① 老人加 附子 人參 黃芪蜜炒 白茯苓 當歸 熟地黃 白朮 陳皮 各1錢 益智仁 8分 升麻 肉桂 各5分 甘草 3分 薑 3片 棗2枚
修正部分	益智仁 → 益智仁研, 附子 → 炮附子
解 說	空心服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 修治가 올바르게 옮겨져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四柱散《大便：寒泄》：治元藏虛冷 臍腹冷痛 大便滑泄 耳鳴頭暈 木香 白茯苓 人參 附子炮 各一錢二分半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鹽少許 水煎 空心溫服(局方)
方藥合編原文	72. 四柱散：治元臟虛寒 大便滑泄 ① 加가자 육두구 名六柱散 木香 白茯苓 人參 附子炮 各1錢2分半 薑3片 棗2枚 鹽少許
修正部分	寒 → 冷
解 說	寒과 冷的 글자속성의 차이를 살펴야 하며, 부수적인 증상은 加減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八柱散《大便：滑泄》：治滑泄不禁 人參 白朮 肉豆蔻煨 乾薑炒 訶子炮 附子炮 罌粟殼蜜炒 甘草炙 各一錢 右剉作一貼 薑三片 烏梅一箇 燈心一團 空心水煎服（回春）
方藥合編原文	73. 八柱散：治滑泄不禁 人參 白朮 肉豆蔻煨 乾薑炒 訶子炮 附子炮 罌粟殼蜜炒 甘草炙 各1錢 薑3片 梅1枚 燈心1團
修正部分	薑3片 → 薑2片
解 說	生薑이 東醫寶鑑엔 2片으로 기록되어있어 修正이 당연하다.

東醫寶鑑原文	四神丸《大便：腎泄》：治脾腎虛 泄痢 又治晨泄經年者 破故紙酒浸炒 四兩 肉豆蔻煨 五味子炒 各二兩 吳茱萸湯泡炒 一兩 右爲末 生薑切八兩 大棗百枚 同煮爛 去薑取棗 和丸梧子大 服如上法（回春）
方藥合編原文	75. 四神丸：治脾腎虛 泄痢及晨泄 [用法] 左末 生薑8兩 大棗100枚 同煮 取棗肉 丸如梧子 空心鹽湯下 3,50丸 ① 破故紙 4兩 肉豆蔻 或生 或煨 2兩 製法同上 名二神丸 加木香 1兩 名三神丸 破故紙酒炒 4兩 肉豆蔻煨 五味子炒 各2兩 吳茱萸炮 1兩
修正部分	破故紙酒炒 → 破故紙酒浸炒, 吳茱萸炮 → 吳茱萸湯泡炒
解 說	약물의 修治에서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東醫寶鑑原文	實腸散《大便：久痢》：治久痢 不分赤白 用此藥搜出黃糞來 山藥炒 一兩 炒黃米 一合 右爲末 用砂糖調 熱湯和勻藥末 適稀稠漸漸服 後用清米湯漱口最效（回春）
方藥合編原文	77. 實腸散：治久痢 不分赤白 用此換出黃糞 [用法] 左末 用砂糖 調熱湯 和末 適稀稠 漸漸服 山藥炒 1兩 黃米炒 1合
修正部分	換 → 搜
解 說	方藥合編의 '換'字를 搜로 바꾸어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膠蜜湯《大便：老人秘結》：治老人虛人 大便秘澀 連根大蔥白 三莖 新水一盞 煎葱爛熟去之 入明阿膠珠二錢 蜜二匙 攪令溶化 空心服（直指）
方藥合編原文	80. 膠蜜湯：治同上 [用法] 左煎水 溶化阿膠2錢服 加檳榔調服 亦可 蜜 1匙 葱 3本
修正部分	
解 說	方藥合編의 내용만으로는 用法的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동의보감 내용 그대로 나열하는게 옳다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滋陰健脾湯《頭：虛暈》：治臨事不寧 眩暈嘈雜 此心脾虛怯也 此治氣血虛損有痰飲作眩暈之仙劑 白朮 一錢半 陳皮鹽水洗去白 半夏製 白茯苓 各一錢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各七分 人參 白茯苓神 麥門冬 遠志製 各五分 川芎 甘草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回春)
方藥合編原文	81. 滋陰健脾湯：治臨事不寧 眩暈 此心脾虛怯也 此治氣血虛損 有痰飲 作眩之仙劑 [活套] 氣虛 倍人參 3,5錢 ① 頭風 加天麻 防風 荊芥 ② 自汗 加桂枝 黃芪 白朮 1錢半 陳皮鹽水洗去白 半夏 白茯苓 各1錢 當歸 白芍藥 生乾地黃 各7分 人參 白茯苓神 麥門 冬 遠志 各5分 川芎 甘草 各3分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半夏 → 半夏製, 遠志 → 遠志製
解 說	病症중 嘈雜은 삽입하여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磁石羊腎丸《耳：耳聾》：治諸般耳聾 補虛開竅 行鬱散風去濕 磁石 三兩煨 再用葱白 木通 各三兩 剉同水煮 一伏時取石研水飛 二兩 川芎 白朮 川椒 棗肉 防 風 白茯苓 細辛 山藥 遠志 川烏 木香 當歸 鹿茸 兔絲子 黃芪 各一兩 肉桂 六錢半 熟地黃 二兩 石菖蒲 一兩半 右爲末 羊腎兩對酒煮爛 和酒糊和丸 梧子大 空心 溫酒或鹽湯 下五十丸 (入門)
方藥合編原文	82. 磁石羊腎丸：治諸般耳聾 補虛 開竅 行鬱 散風 去濕 [用法] 左末 羊腎兩對 酒煮 爛和酒 糊丸如梧子 空心溫酒 或鹽湯下 50丸 磁石 3兩煨 再用 葱白 木通 各3兩 同水煮一伏時取水飛2兩 熟地黃 2兩 石菖蒲 1兩半 川芎 白 朮 川椒 大棗肉 防風 白茯苓 細辛 山藥 遠志 川烏炮 木香 當歸 鹿茸 兔絲子 黃芪 各1兩 官桂 6 錢半 羊腎 兩對
修正部分	川烏炮 → 川烏
解 說	東醫寶鑑엔 川烏의 修治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東醫寶鑑原文	扶陽助胃湯《胸：冷心痛》：治胃脘當心而痛 經曰：寒氣客於腸胃之間則卒然痛 得熱則已此藥主之 附子炮 二錢 乾薑炮 一錢半 草豆蔻 益智仁 白芍藥酒炒 人參 甘草炙 官桂 各一錢 吳茱萸 白朮 陳皮 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棗二枚 水煎服 (丹心)
方藥合編原文	85. 扶陽助胃湯：治胃脘當心痛 寒氣客於腸胃卒然痛 附子炮 2錢 乾薑炮 1錢5分 草豆蔻 益智仁 白芍藥酒炒 人參 甘草炙 官桂 各1錢 吳茱萸 白朮 陳 皮 各5分 薑3片 棗2枚
修正部分	腸 → 腸
解 說	病理를 無理하게 축소시켜 難解하므로 삽입이 필요하다.

東醫寶鑑原文	芍藥甘草湯《腹：腹痛通治》：白芍藥 四錢 甘草炙 二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稼穡作甘 甘者己也 曲直作酸 酸者甲也 甲己化土 此仲景妙法也 酸以收之 甘以緩之 (東垣)
方藥合編原文	86. 芍藥甘草湯：甘者己也 酸者甲也 甲己化土 此仲景妙法也 酸以收之 甘以緩之 [活套] 小兒肝氣 加青皮 釣鈎藤 木瓜 ① 乳滯 加陳皮 麥芽 ② 挾感 加乾葛 蘇葉 忍冬之類 俗 名甲己湯 白芍藥 4錢 甘草炙 2錢
修正部分	
解 說	李東垣의 원리설명중 빠진 部分의 삽입은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東醫寶鑑原文	青娥元《腰：腎虛腰痛》：治腎虛腰痛 杜仲薑汁炒 破故紙炒 各四兩 胡桃肉 三十箇 右爲末 生薑二兩半 取汁入煉蜜 和丸梧子大 空心溫 酒或鹽湯 吞下百丸 (丹心)
方藥合編原文	87. 青娥丸：治腎虛腰痛 [用法] 左末 生薑 2兩半汁 和煉蜜丸 梧子大 空心溫酒 或鹽湯吞下 100丸 杜仲薑炒 破故紙炒 各4兩 胡桃 30枚
修正部分	腎虛腹痛 → 腎虛腰痛, 胡桃 30枚 → 胡桃肉 30箇
解 說	腎虛腰痛과 腎虛腹痛은 病症의 으로 차이를 가지므로 轉寫과정중의 큰 誤字라고 할 수 있다.

東醫寶鑑原文	獨活寄生湯《足：脚氣治法》：治肝腎虛弱 筋攣骨痛 脚膝偏枯 緩弱冷痺 獨活 當歸 白芍藥 桑寄生 各七分 熟地黃 川芎 人參 白茯苓 牛膝 杜仲 秦艽 細辛 防風 肉桂 各五分 甘草 三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水煎空心服（回春）
方藥合編原文	88. 獨活寄生湯：治肝腎虛弱 筋攣 骨痛 脚膝偏枯 冷痺 ① 空心服 [活套] 虛冷 倍人參 熟 加附子 獨活 當歸 白芍藥 桑寄生 各七分 熟地黃 川芎 人參 白茯苓 牛膝 杜仲 秦艽 細辛 防風 肉桂 各五分 甘草 3分 薑3片
修正部分	
解 說	내용상의 문제점은 없다.

東醫寶鑑原文	大防風湯《足：鶴膝風》：治鶴膝風熱 地黃 一錢半 白朮 防風 當歸 白芍藥 杜仲 黃芪 各一錢 附子 川芎 牛膝 羌活 人參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五片 棗二枚 水煎服 祛風順氣 活血脈 壯筋骨（正傳）
方藥合編原文	89. 大防風湯：治鶴膝風 去風 順氣 活血 壯筋 熟地黃 1錢半 白朮 防風 當歸 白芍藥 杜仲 黃芪 各1錢 附子炮 川芎 牛膝 羌活 人參 甘草 各5分 薑5片 棗2枚
修正部分	附子炮 → 附子
解 說	修治한 것이 오히려 점진적 발전이라 할 수도 있다.

東醫寶鑑原文	參芪湯《後陰：脫肛》：治肛門虛寒 脫出 人參 黃芪蜜炒 當歸 白朮 生地黃 白芍藥酒炒 白茯苓 各一錢 升麻 桔梗 陳皮 乾薑炒 各五分 甘草炙 三分 右剉作一貼 水煎服（回春）
方藥合編原文	92. 參芪湯：治肛門虛寒 脫出 肺腎虛者 多有此症 宜升之 人參 黃芪蜜炙 當歸 生地黃 白芍藥酒炒 白茯苓 白朮 各1錢 升麻 桔梗 陳皮 乾薑 各5分 甘草炙 3分
修正部分	黃芪蜜炙 → 黃芪蜜炒, 乾薑 → 乾薑炒
解 說	방약합편의 '肺腎虛者 多有此症 宜升之'는 출전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東醫寶鑑原文	托裏消毒散《癰疽：癰疽內托法》：凡癰疽服此則 未成即消 已成即潰 能壯氣血 使毒氣不致內攻 肌肉易生 金銀花 陳皮 各三錢 黃芪鹽水炒 天花粉 各二錢 防風 當歸 川芎 白芷 桔梗 厚朴 穿山甲炒焦 皂角刺炒 各一錢 右剉作二貼 每一貼酒水相半煎服 病在下只用水煎（醫鑑）
方藥合編原文	93. 托裏消毒散：治癰疽 未成即消 已成即潰 ①酒水相半煎服 病在下 只水煎 [活套] 膿稍成而氣虛 加人參 3,5錢 ② 虛冷 又加肉桂 金銀花 陳皮 各3錢 黃芪鹽水炒 天花粉 各2錢 防風 當歸 川芎 白芷 桔梗 厚朴 穿山甲炒焦 皂角刺 各1錢
修正部分	托裏消毒散 → 托裏消毒散, 皂角刺 → 皂角刺炒
解 說	① 處方名은 東醫寶鑑내에서 托裏消毒散과 托裏消毒散이 처방내용상 분명한 차이를 가지므로 당연히 '托裏消毒散'으로 改名되어야 한다. ②皂角刺는 皂角刺炒로 修治되어야 하며, ③처방내용에 대한 중요한 약리기전의 삽입은 고려되어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加味十全湯《癰疽：癰疽排膿生肌法》：治癰疽潰後 補氣血 進飲食 排膿生肌 黃芪酒蒸 熟地黃 當歸 川芎 人參 白茯苓 白芍藥炒 白朮 陳皮 烏藥 五味子 桂心 甘草 各八分 右剉作一貼 入薑三棗二 水煎服 (得效)
方藥合編原文	94. 加味十全湯: 治癰疽 潰後 補氣血 排膿 生肌 十全大補湯(上統33) 加 陳皮 烏藥 五味子 各8分
修正部分	
解 說	東醫寶鑑에서는 모든 藥物이 各8分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方藥合編은 十全大補湯의 加味方으로 표현함으로써 용량의 부정확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修治에 있어서도 加味十全湯에서는 酒蒸熟地黃과 白芍藥炒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原文	國老膏《癰疽：懸癰》：治懸癰橫紋 ·大甘草帶節 一兩 四寸切以山澗長流水一碗 文武火慢慢燻水炙 自早至午乾則投前水 再炙 直待水盡看甘草中心潤透爲度細剉 好酒二升 煎取一升 空心隨量 飲之三日一服二三服可保 無虞此藥雖不即消過二十日後 必盡消 有人患此癰已破服兩貼瘡卽合甚妙 (精要)
方藥合編原文	96. 國老膏: 治懸癰 [用法] 左以山澗長流水一碗文武火慢慢燻水炙 自朝至午乾則浸前水 再炙 待水盡爲度細剉 好酒三升 取一升 空心隨量 飲2,3服 可保 無虞過20日後 必盡消 * 大甘草帶節4寸切 1兩
修正部分	朝 → 早, 浸 → 投, 三升 → 二升,
解 說	감초의 중심부까지의 투과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3일에 1服도 포함시켜야만 할 것이다.

東醫寶鑑原文	調經散《胞：調血治法》：一名溫經湯 治月候不調 麥門冬 二錢 當歸 一錢半 人參 半夏製 白芍藥 川芎 牡丹皮 各一錢 阿膠珠 甘草炙 各七分半 吳茱萸 肉桂 各五分 右剉作一貼 薑三片 水煎服 (入門) ○ 千金調經湯 治同上 當歸 川芎 白芍藥 各一錢 麥門冬 半夏 各七分 人參 阿膠珠 牡丹皮 吳茱萸 肉桂 各五分 甘草 三分 右剉服如上法 (回春)
方藥合編原文	97. 調經散: 治月候不調 ① 一名溫經湯 一名千金調經湯 [活套] 氣虛 倍人參 ② 加附 益尤妙 麥門冬 2錢 當歸 1錢半 人參 半夏 白芍藥 川芎 牡丹皮 各1錢 阿膠珠 甘草炙 各7分半 吳茱萸 肉桂 各5分 薑3片
修正部分	半夏 → 半夏製
解 說	千金調經湯은 용량에 있어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原文	調經種玉湯《婦人：求嗣》：治婦人無子 多因七情所傷致經水不調不能受孕 熟地黃 香附子炒 各六錢 當歸身酒洗 吳茱萸 川芎 各四錢 白芍藥 白茯苓 陳皮 玄胡索 牡丹皮 乾薑炒 各三錢 官桂 熟艾 各二錢 右剉分作四貼 每一貼入薑三水煎 空心服 待經至之日 服起一日一貼藥盡交媾必成孕矣 此藥百發百中 (醫鑑) ○ 回春 無薑桂艾三味
方藥合編原文	101. 調經種玉湯: 治婦人無子 經不調 ①空心服 ②待經至之日 服之 間日 1貼藥盡交媾 熟地黃 香附子炒 各1錢半 當歸身酒洗 吳茱萸 川芎 各1錢 白芍藥 白茯苓 陳皮 玄胡索 牡丹皮 乾薑炒 各8分 官桂 熟艾 各5分 薑3片
修正部分	
解 說	① 婦人無子の 原因이 七情所傷이므로 첨가되어야 하고, ② 처방의 용량비율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轉寫한다면 올바르게 되어야 할 것이다. ③ 복용방법이 방약합편대로하면 의미가 바뀌므로 동의보감대로 고쳐야 할 것이다.

東醫寶鑑原文	保生湯《婦人：惡阻》：治婦人月經不行 身無病似病 脉滑大而六脉俱勻 乃孕婦之脉也 精神如故 惡聞食氣 或但嗜一物 或大吐或時吐清水 此名惡阻 宜服此 白朮 香附子 烏藥 橘紅 各二錢 人參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薑三煎服 (良方)
方藥合編原文	105. 保生湯: 治惡阻 或惡聞食氣 或吐清水 [活套] 虛加 人蔘 ① 嘔加 白豆蔻 竹茹 白朮 香附子 烏藥 橘紅 各2錢 人蔘 甘草 各1錢 薑3片
修正部分	或吐清水 → 或時吐清水
解 說	妊娠과 惡阻의 나타남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는데 불과하므로 삭제되어도 문제점이 없다.

東醫寶鑑原文	膠艾芎歸湯《婦人：胎漏胎動》：治胎動下血 在八九月內者 及治半產後因續下血不絕者 阿膠珠 艾葉 川芎 當歸 各二錢 甘草炙 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 胎動腹痛 或下黃汁如漆如豆汁者 野苧根 金銀花根 各五錢 水酒相半煎服 (入門)
方藥合編原文	106. 膠艾芎歸湯: 治胎動下血 及半產下血 [活套] 加 豆 粟 白朮 人蔘 尤好 阿膠 艾葉 川芎 當歸 各2錢 甘草炙 1錢
修正部分	阿膠 → 阿膠珠
解 說	

東醫寶鑑原文	安胎飲《婦人：胎漏胎動》：治胎動不安五六箇月 常服數貼甚妙 白朮 二錢 條芩 一錢半 當歸 白芍藥 熟地黃 縮砂研 陳皮 各一錢 川芎 紫蘇葉 各八分 甘草 四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醫鑑) ○ 一方 有人蔘 無熟地黃 代生地黃 (入門) ○ 胎不安加阿膠 胎痛加縮砂 ○ 黃芩安胎者降火也 縮砂安胎者行氣也 若血虛而胎不安阿膠主之 (丹心)
方藥合編原文	108. 安胎飲: 治胎動五六個月 常服數貼 或加阿膠 [活套] 冷者去芩 ① 虛加人蔘 白朮 2錢 條芩 1錢半 當歸 白芍藥 熟地黃 縮砂 陳皮 各1錢 川芎 蘇葉 各8分 甘草 4分
修正部分	
解 說	① '胎不安加阿膠胎痛加縮砂'는 가미에서 삽입되어야 할 것이며, ② 단계심법의 내용은 중요한 방제학적 특징이므로 알 수 있게 제시되었어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金匱當歸散《婦人：半產》：孕婦宜當服 養血清熱 素慣半產者宜服 以清其源而無後患也 黃芩 白朮 當歸 川芎 白芍藥 各一兩 右爲末 每三錢溫酒調下 或酒糊和丸米飲下五七十丸 (入門) ○ 婦人有孕則得脾 運化遲而生濕 濕而生熱 古人用白朮黃芩爲安胎之聖藥 蓋白朮補脾燥濕 黃芩清熱故也 况妊娠賴血培養 此方有當歸川芎芍藥以補血尤爲備也 服此藥則易產所生男女 兼無胎毒則痘疹亦稀 無病易育而聰明智慧不假言矣 累試累驗 (丹心)
方藥合編原文	109. 金匱當歸散: 孕婦常服 養血 清熱 素慣半產者 宜服 [用法] 爲末 每3錢 溫酒調下 [活套] ①或作湯用 ② 素慣虛冷者 不可過服黃芩 黃芩 白朮 當歸 川芎 白芍藥 各1兩
修正部分	孕婦常服 → 孕婦宜當服
解 說	丸藥화에 대한 설명이 부가되어도 될 것 같고, 丹溪心法の 내용설명은 약리학적으로 중요하다 고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芎歸湯《婦人：妊娠通治》：治產前產後諸疾 及血暈不省 橫生逆產 死胎不下 血崩不止 臨月服之 則縮胎易產 產後服之則惡血自下 川芎 當歸 各五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日二三次 ○ 又治半產去血多 產後去血多 崩中去血多 金瘡去血多 拔牙齒去血多 及一切去血過多 眩暈悶絕 不省人事者 連進數服即甦 (得效) ○ 當歸 六錢 川芎 四錢 名佛手散
方藥合編原文	112. 芎歸湯: 治產前後諸疾 及血暈 不省橫 逆 死胎不下 血崩不止 臨月服之 縮胎易產 產後服之 惡血自下 川芎 當歸 各5錢
修正部分	
解 說	연결성을 가지는 字句는 제외될 수도 있으나 내용을 흐름을 원활히 하기위해 첨가해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東醫寶鑑原文	鯉魚湯《婦人：子腫》：治子腫 白朮 赤茯苓 各二錢 白芍藥 當歸 各一錢半 橘紅 五分 右剉作一貼 先取鯉魚一箇 修事如食法 水煮取清汁 一盞半入藥 及薑七片煎至一盞 空心溫服 以水盡腫消爲度 (良方)
方藥合編原文	114. 鯉魚湯: 治子腫 白朮 赤茯苓 各2錢 白芍藥 當歸 各1錢半 橘紅 5分 鯉魚 一箇 水煮取一盞半入藥 及生薑七片煎至一盞 空心服以腫消爲度
修正部分	空心服 → 空心溫服
解 說	

東醫寶鑑原文	參朮飲《小便：轉脬證》：治孕婦轉脬 小便不通 四物湯料 加 人參 白朮 半夏 陳皮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生薑三片 大棗二枚 水煎 空心服 服後探吐之 (丹溪) ○ 一方 葵子 梔子炒 滑石 各五錢 木通 三錢 右剉作一貼 水煎 空心服 外以葵子梔子滑石爲細末 入田螺肉擣膏 或生葱汁調貼臍中立通 (正傳) ○ 一孕婦 九月轉脬 尿閉脚腫 形瘁 脉左稍和而右澁 此必飽食氣傷 胎系弱不能自舉而下壓膀胱 故閉而不通 以人參白朮當歸芍藥陳皮半夏甘草 煎服四貼 次早煎查頓服探吐 小便大通皆黑水 (丹溪) ○ 一孕婦 轉脬 脉細 氣弱 胎壓膀胱下口 用補藥恐加急滿 令產婆以香油抹手 入產門托起其胎 尿出如注 (丹溪) ○ 又法將孕婦倒豎起胎自墜轉 其尿注出勝於手托 (丹溪)
方藥合編原文	115. 參朮飲: 治孕婦轉脬尿閉 [用法] 左煎飲 探吐 又與 又吐 四物湯(上統68) 各1錢 加 人參 白朮 半夏 陳皮 各1錢 甘草 5分 薑3片
修正部分	
解 說	① 東醫寶鑑에선 四物湯 각1錢이란 표기가 없고 다만 四物湯料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② 方藥合編에는 甘草가 5分이지만 東醫寶鑑에선 1錢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③ 방약합편에서 빠진 大棗 2枚는 첨가되어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當歸黃芪飲《婦人：產後陰脫》：治產後陰脫 黃芪酒炒 三錢 人參 當歸 升麻 各二錢 甘草 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日三 (丹心)
方藥合編原文	118. 當歸黃耆湯: 治產後脫陰 ①日3服 [活套] 升麻減用亦可 虛甚倍人參 黃芪酒炒 3錢 人參 當歸 升麻 各2錢 甘草 1錢
修正部分	當歸黃耆湯 → 當歸黃芪飲
解 說	처방명을 정확히 轉寫하여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白朮散《小兒：慢驚風》：治吐瀉日久不止 津液枯竭 煩渴引飲 欲成慢驚風 葛根 二錢 人參 白朮 白茯苓 木香 藿香 甘草 各一錢 右蠶末每二錢水煎 任意服 ○ 泄瀉 加山藥 白扁豆 肉豆蔻 已成慢驚 加天麻 細辛 全蝎 白附子 ○ 驚風泄瀉煩渴 皆津液內耗也 不問陰陽 多煎滿意取足飲之 彌多彌好 ○ 一名錢氏白朮散(錢乙) ○ 一名清寧散(得效)
方藥合編原文	120. 白朮散：一名錢氏白朮散 一名清寧散 ① 治吐瀉日久 津枯 煩滿 引飲 欲成慢驚 ② 泄 加山藥 白扁豆 肉豆蔻 ③ 慢驚 加天麻 細辛 白附子 ④ 每2錢 水煎 任意服 ⑤ 或減 木香 甘草 各5分 煎服亦可 [活套] 大人小兒 泄瀉 氣脫 倍人參 3,5,7錢 加肉豆蔻 破故紙 金櫻子 吳茱萸之類 ⑥ 尿不利 加澤瀉 車前子 ⑦ 傷寒餘熱未淨 而泄瀉 亦宜 乾葛 2錢 人參 白朮 白茯苓 木香 藿香 甘草 各1錢
修正部分	煩滿 → 煩渴
解 說	慢驚風에서 加味藥物중 '全蝎'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첨가되어야 한다.

東醫寶鑑原文	保元湯《小兒：通治》： 人參 二錢 嫩黃芪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一片 水煎服(醫鑑) ○ 一二日初出乾紅少潤 此毒尚淺宜用活血勻氣 兼解毒之藥 加白芍藥一錢 當歸五分以活血 加陳皮五分以勻氣 加玄參鼠粘子各七分以解毒 ○ 二三日根窠雖圓而頂陷者 爲氣虛弱血亦難聚 宜加川芎官桂 ○ 四五日根窠雖起色不光澤 爲氣弱血盛 宜加白芍藥官桂糯米 ○ 五六日氣盈血弱色昏紅紫 宜加木香當歸川芎 ○ 六七日不能成漿 爲氣血少寒不能制 宜加官桂糯米 ○ 七八日毒雖化漿而不滿 宜加官桂糯米發陽助漿 ○ 八九日漿不沖滿氣弱而險 宜加糯米以成漿 ○ 十一日十二日血盡漿足濕潤不斂者 內虛也 加白朮白茯苓助其收斂 ○ 十三十四十五日毒雖盡解 或有雜證相仍 只以此藥隨證加減 不可用大寒大熱之劑 恐致內損之患(醫鑑)
方藥合編原文	121. 保元湯：治痘疹 2,3日 根窠雖圓 而頂陷 氣虛弱 血難聚加 川芎 官桂 ① 4,5日 根窠雖起 色不光澤 氣弱 血盛加 白芍藥 官桂 糯米 ② 5,6日 氣盈 血弱 色昏紅紫加 木香 當歸 川芎 ③ 6,7日 不能成漿 氣血少 寒不能制加 官桂 糯米 ④ 7,8日 毒雖化漿 而不滿加官桂 糯米 ⑤ 8,9日 漿不充滿加糯米 ⑥ 11,12日 濕潤 不斂 內虛加 白朮 白茯苓 ⑦ 13,14,15日 毒雖盡解 或有雜症 只以此藥 隨症加減 不可用大寒大熱之劑 人參 2錢 黃芪 甘草 各1錢 薑1片
修正部分	黃芪 → 嫩黃芪, 8,9日 漿不充滿加 → 8,9日 漿不沖滿加
解 說	① 痘疹 1,2일의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유를 알 수 없으며 삽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② 간혹 빠진 부분이 있으나 큰 의미의 변화는 없다고 하겠다.

東醫寶鑑原文	安胎散《小兒：附孕婦痘疹》：人參 陳皮 大腹皮 白朮 當歸 川芎 白芍藥 香附子童便炒 縮砂 紫蘇葉 赤茯苓 甘草 各三分 右剉作一貼 入燈心七莖 糯米百粒 同煎服(正傳)
方藥合編原文	1. 安胎飲：治孕婦痘疹 人參 陳皮 大腹皮 白朮 當歸 川芎 白芍藥 便香附 砂仁 蘇葉 赤茯苓 甘草 各3分 燈心 7莖 糯米 100粒
修正部分	安胎飲 → 安胎散, 孕婦痘疹 → 孕婦痘瘡, 便香附 → 香附子童便炒
解 說	安胎飲은 東醫寶鑑內에서 安胎散과는 별개의 처방으로 존재하므로 方藥合編의 安胎飲은 安胎散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III. 結 論

方藥合編 上統을 東醫寶鑑에서 나온 내용과 비교 분석한 바 轉寫過程중의 誤謬로 발생하는 중요한 醫學的 문제점으로 指摘되고 修正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결론적으로 提示하고자 한다.

1. 蓼歸益元湯의 藥물용량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
2. 補中益氣湯의 變方중 陶氏補中益氣湯의 빠진 藥물은 첨가되어야 한다.
3. 十全大補湯과 加味十全湯 그리고 蓼朮飲의 藥물용량의 混沌性을 東醫寶鑑式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4. 處方名중 六味地黃元, 托裏消毒飲, 安胎飲은 수정되어야 한다.
5. 小建中湯의 용량표기도 삽입되어야 한다.
6. 仁熟散과 靑蛾元의 病症은 수정되어야 한다.
7. 瓊玉膏의 益壽永眞膏는 表記부분을 바꾸어야 한다.

8. 調經種玉湯의 病因은 삽입되어야 한다.
9. 保元湯의 병리변화에서 제외된 내용은 삽입되어야 한다.

全般的으로 韓醫學的 藥理機轉을 提示한 諸家의 理論이 충분치 못해 단순히 臨機應變만 가능케 함으로서 處方箋의 濫用으로 誤服할 素地가 많으므로 앞으로 이에대한 學問的 뒷받침이 進行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IV. 參考文獻

1. 許浚 :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66
2. 黃度淵 : 方藥合編, 서울, 南山堂, 1977
3. 南京中醫學院 : 中醫方劑大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4. 宗全和 : 中醫方劑通釋, 河北, 河北科學技術出版社, 1995
5. 江克明·包明蕙 : 簡明方劑辭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7